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명수*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UPM)	기간	2016. 6. 25(토) ~ 7. 23(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해안가 항구도시인 수빅은 마닐라에서 차로 3~4시간 정도 떨어져 있으며 원래는 마닐라 공항에서 입국해 차를 4시간 타고 어학원으로 갔다고 했지만 올해는 어학원에서 1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 클락공항에 도착해서 나름 편했던 것 같다. 학원은 총 5층으로 1층은 선생님들 휴식, 수업준비 공간이고 2,3,4층은 주로 강의실 5층은 조그마한 강당이 있다. 잠자는 숙소 방은 각 층의 왼편, 오른 편에 아파트 구조로 되어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 학생들도 같이 생활했다.</p>
수업	<p>첫날 우선 레벨 테스트(토익 같은 Test & Speaking Test)를 본 후 점수를 매겨 정원 20명을 5명씩 4개의 그룹으로 반 편성을 한다. 매 수업시간마다 쉬는 시간은 10분이고 8시부터 5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 3시간은 1:1, 5시간은 그룹수업으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자신을 가르쳐주는 강사는 총 8명이다. 그룹수업은 5가지 과목으로 듣기/멀티미디어/Resume/Impact Issue/문법이 있다. 듣기는 CNN뉴스를 듣고, 멀티미디어 수업은 뮤직비디오, 광고, 영화 등의 영상을 통해 수업하고 뮤직비디오와 광고를 그룹별로 만든 후 대회를 열어 시상까지 한다. 이력서수업은 외국 회사에 취업한다는 가정 하에 미리 준비과정을 배우고 막바지에 직접 이력서를 만들어 영어로 면접도 보게 된다. Impact Issue라는 과목은 기사 같은 글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이 많았다. 과제는 선생님 재량이고 주로 1대1 수업에서 과제가 좀 있었다. 에세이 식으로 글을 써오라는 선생님도 계셨다. 책은 반 편성 후 나눠주는데 은근히 많고 나중에 집에 크게 차지한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어책을 많이 챙겨오지 말고 한 권 정도면 적당하다 생각한다.</p>

Activity	<p>요트체험, 섬/비치 투어, 사파리, 승마, 해양스포츠, 오션(돌고래 등)체험 등 여러 가지가 많다.</p> <p>첫 주에는 20명 다 같이 대만학생들도 함께 요트 체험을 했다. 함께 돈을 모아 요트에서 먹을 고기 등 갖가지 장을 보기도 했다. 그리고 요트가 섬 근처에 1시간 정도 정박해서 스킨스쿠버와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총 1800페소(4만 5천원~5만원) 정도 소비했다.</p> <p>두 번째 주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냥 친구들과 쇼핑을 즐겼다.</p> <p>마지막 주에는 카마얀 비치라는 곳을 가서 바다에서 노는 시간을 가졌다. 입장료부터 구명조끼와 오두막비 대여료, 교통비까지 800페소(2만원) 정도 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수업을 빠지고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위해 300페소(7500원)를 걷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필리핀에서는 5월까지가 무더운 여름이고, 6월부터는 우기라고 해서 머무는 기간 동안 비가 많이 왔다. 천둥번개도 자주 치고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것을 자주 보았다. 필리핀이고, 여름에 가서 나는 더울 줄 알고 긴팔을 안 챙겼다. 하지만 학원 강의실과 백화점 등의 건물 안은 에어컨이 뽕뽕함으로 얇은 가디건 또는 후드집업을 챙겨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안전	수빅은 필리핀에서 총기소지가 불법인 지역으로서 백화점 안을 들어갈 때 공항 검색대 같은 게 설치되어 있어서 항상 그곳을 통과하고 가방 소지품 검사를 했다. 그래서 수빅에서 한 달 동안 어학연수 생활을 하면서 테러 등의 걱정은 딱히 하지 않았다.
숙소	<p>학교기숙사(V)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일~목요일은 10시이고 금, 토요일은 새벽2시가 통금시간이다. 평일에는 10시에 점호를 하며 술은 학원에 반입금지이다. 평일에는 숙제를 위해 밤 12시까지 강의실을 개방해줌으로써 그곳에서 과제하거나 와이파이를 즐겼다. 와이파이는 방에서 절대 터지지 않고 오로지 각 층 복도와 강의실에서만 터진다. 유심칩 산 친구들을 봐도 그다지 잘 터지지 않는 것 같았다. 1달 동안 살면서 벌레가 3번 정도 나왔다. 나도 벌레를 워낙 무서워했으나 나중에는 매우 작은 도마뱀과도 함께 살았다. 방 청소와 세탁 서비스는 2월에 한 번씩 해줬으며(주말제외), 세탁물 말기는 비용은 무료였다.</p>

식사	<p>학교식당(V) 홈스테이 () 외부식당 (V) 기타()</p> <p>학교 식당은 아침 7시~8시, 점심12시~1시, 저녁5시~6시로 이용가능하고 주말에는 아침은 8시부터, 저녁은 6시부터였다. 학교 식당 요리사가 필리핀사람인데도 불구하고 3끼 모두 한식으로 나왔으며 아침에는 가끔씩 식빵과 잼으로 간단하게 나왔다. 저녁에는 주로 외부 식당을 이용하기도 했는데 필리핀음식은 대체로 짠다. 수돗물이라는 소리가 있어서 식당에서 주는 물은 안 먹는 게 좋다. 그거 먹고 물같이 시작한 사람도 많이 봤다.</p>
교통	<p> 시내로 나가면 하버포인트와 SM 몰이라는 큰 백화점 2개가 있다. 시내로 나가는 방법은 많다. FB라는 네모난 흰색 차를 타면 13페소(400원 이하)이고, 콜택시를 부르거나 택시를 타는 방법도 있지만 150~200페소로 가격이 조금 비싸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퇴근하기 위해 이용하는 블루 지프니에 자리가 남을 때에는 공짜로 탈 수 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여행자보험,유학허가증,교재비,전기세,시설관리비, 공항세	766,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Activity비, 쇼핑비	450,000	달러로 가져가서 페소로 환전함
병원비	90,000	물감으로 인해
합계	1,315,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p>필리핀에 가기 전, 나는 내가 어학연수를 지원한 필리핀 마닐라 대학교 기숙사에서 살면서 영어 공부를 하겠구나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Times-SLC라는 어학원에서 4주간 영어 공부를 하고 마지막 주 중 하루 날을 잡고 필리핀마닐라대학을 가서 대학탐방을 하고, 몇 시간 강의를 듣고 그 대학의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등을 가지면 마닐라 대학의 어학원에서 수료증 같은 것이 나오게 된다. 처음에는 대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으나 4주간 지내면서 어학원이 영어공부하기에 더욱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내가 공부했던 곳이 치안, 테러로부터 안전해서 전반적으로 더 좋았던 것 같다. 그리고 말라리아가 걱정된다고 약을 타갈까 말까 고민할 수도 있는데 약을 타온 사람은 20명 중에 2명도 될까 말까 하다. 나랑 내 친구는 약을 타왔으나 나는 그 약을 먹고 부작용이 났고, 내 친구는 챙겨먹지 않아 우리 둘 다 돈만 날리게 되었다.</p>

6. 본인 소감 및 평가

어학연수를 붙고, 가기 전에 미리 공부 할 시간이 한 달 정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공부를 하고 가겠다고 다짐만 했었고,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어학연수를 갔다. 처음 레벨 테스트 때 '영어 단어라도 좀 외우고 올걸...' 후회가 났었다. 특히 듣기부분이 약한 나는, 잘 듣지를 못하니까 말하기도 쉽게 되지 않았고 첫 스피킹 테스트에서 울 뻔 했다. 막상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반이 되어서 많이 힘들기도 했었다. 그룹 내에서 다른 언니, 오빠들은 말하기를 잘하는데 나는 문법, 단어보다도 듣기와 말하기가 가장 약했었으니까 수업을 따라가기 벅차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었다. 첫 주에는 선생님들의 말을 들으려면 모든 집중을 쏟아야 했었으나 점점 4주가 될수록 내 귀가 열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점점 어떤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말을 해야 하는지도 스스로 터득해 나갔고 마지막 최종 테스트 때, 확실히 내가 말하기와 듣기가 많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가면 아직 한 달이라는 방학이 남아있고 필리핀에서는 한 달 내내 8시간씩 영어듣기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였으나 한국에 가면 다시 귀가 닫힐 것 같아서 불안해졌다. 그래서 나는 한국에 돌아와서도 영어듣기를 꾸준히 공부해서 내 귀가 닫히지 않도록 유지할 것이고 주기적으로 단어도 외우면서 토익공부를 제대로 시작해 봐야겠다. 어학연수를 내가 직접 다녀와 보니 듣기와 말하기는 정말 향상된다는 것을 느꼈고 어학연수 가기 전, 미리 공부를 해가는 것도 좋지만 내 생각에는 연수를 다녀온 후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녀온 후에도 반드시 꾸준히 영어공부를 해야 4주 동안 배웠던 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고 나도 앞으로 계획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요트 체험



20명 다 같이 시내 나간 날



카마얀비치에서



고아원 봉사가서



졸업식



인천공항에 도착 후